

도농교류페스티벌의 마을 참여와 주민의식 변화



이 규 정 대표
외암민속마을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이 다가오면 서 나와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몇날 며칠을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다.

처음 참가 신청을 하고 주민 회의를 개최 하며 주민들과 많은 의견 차이로 약간의 갈등도 있었다. 주민들의 생각은 2005년 도농교류페스티벌에 참가 할 때 와 같이 마을의 프로그램 홍보에 중점을 두고 부스 역시 소박하게 적은 비용으로 참가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도농교류페스티벌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이며 찬스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들이 있다. 그 많은 마을들 중에 도시민들을 우리 마을까지 오게 하

기 위해서는 기존의 홍보 전략에서 탈피해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시선을 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곳에 오는 도시민들은 많은 마을들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에는 많은 체험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속에서 도시민들에게 우리 마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 했다. 도시민이 바라보는 농촌은 논밭이 있고 집들이 군락을 이루고 산과 들이 있는 농촌을 연상한다. 때문에 도시민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과거의 농촌 모습이 아닌 현재의 농촌을 보여줌으로 도시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득한 고향생각을 불러 일으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조금은 무리되어도 과감한 시도를 하자고 제의하여 주민들에



외암민속마을 청년들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집을 짓고 있다.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테이프 커팅



외암민속마을 부스에서 농림부 장관과 함께

게 흔쾌히 동의를 구했다. 이런 주민의 의지를 지자체에서도 인정하여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청년들로 구성된 시설 팀을 이끌고 1톤 화물트럭 4대에 그동안 준비한 기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로의 상경은 희망 그 자체였다. 다른 마을들보다 이틀 일찍 도착한 마을의 선봉장들은 열심히 집을 짓고 땀을 흘리면서도 힘들어 하지 않고 얼굴가득 우리 마을의 아름다움을 뽐낸다는 그런 모습이 가득 했다.

이번 도농교류페스티벌에 참가목적은 모든 마을이 그러하듯이 도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우리농촌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단지 의 농촌이 아닌 여가문화를 즐기면서 휴 향 과 체험 등을 함께하는 곳이 농촌임을 알리고 도시민들의 휴가를 유명관광지에서 농촌으로 오도록 하기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 마당이라 생각 한다.

농림부 장관과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페스티벌개막을 알리는 테이프가 커팅 되고 한, 두 시간 지나면서 참가한 마을 주민대표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 하였다. 홍보 부족으로 사람들이 너무 오지 않는다는 불만부터 페스티벌 장소선정이 부적합하였다는 말까지 그들이 하는 말들이 맞는 말이

다. 하지만 나는 이번행사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페스티벌이었다. 우리가 농·특산물 판매나 축제를 하였다면 실망만 하였을 것이다. 물론 도농교류페스티벌도 축제의 한마당이다 하지만 여느 축제와는 다르다고 생각 한다. 우리가 만든 이번 축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가족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가족이 움직이는 시기는 주말이나 휴일일 것이다. 이번 도농교류페스티벌에서 주말과 휴일에는 어느 행사장 못지않게 방문자들이 많았다고 본다. 다만 개막일과 다음날에 단체나 학생들의 방문이 아닌 유치원생들의 소풍장소였다는 것이 아쉽다는 마음이 든다. 기왕 비용을 들여 홍보를 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페스티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들만



고객 방문예약

▶외암마을 페스티벌 이미지



다듬이질 체험



전통혼례



지게지기 체험



곤장 맛기 체험



최우수 체험마을상 수상



빙투기 체험

의 찬지가 아닌 교육관계자나 체험학습 관계자를 초청하여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좀 더 낫은 페스티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번 도농교류페스티벌의 가장 큰 성과를 많은 고객 방문예약이라고 생각한다. 주관부처에서 성과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여 무조건적으로 예약을 받은 경우도 많겠지만 도시민들의 휴가 성향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받은 예약이지만 마을에서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 따라 마을들에게 큰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도농교류페스티벌과 같은 행사가 지속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곳에서도 발전된 기획이 필요 하지만 참가하는 마을들 역시 확고한 목적과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 같다. 행사에 참가해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알리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도시민들이 참여 하고 돌아갔을 때 어느 마을에서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또 농촌이 쌀과 작물을 생산하는 곳에서 체험과 휴식을 함께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만들어 주어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불러 일으켜주는 행사가 되어야 전국의 수많은 농촌체험 마을들이 지속적인 발전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다.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은 우리에게 정부의 의지와 도시민의 농촌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마당이었다고 생각한다.

도농교류페스티벌이 격년제가 아닌 매년 개최되는 행사가 되어 일 년에 한번은 모든 체험마을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어 도시민과의 만남은 물론이고 마을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새로이 시작하는 마을들의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참가 하는 농촌체험마을들은 페스티벌이 단순한 체험행사가 아닌 마을 발전의 계기임을 인식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구상하여 참가해 마을들이 바라는 참가 목적을 이루는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